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5_spring

통권 1087호

두레판



2025년 희년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contents

2025_spring
통권 1087호

- 02 2025년 희년 기도문
- 03 목차
- 04 말씀읽기 · 말씀 다지기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32 티노생각
- 34 탕이와 아치
- 36 영어 오디오북
- 37 있어보이는 우리말
- 38 오! 가.작.통
- 40 with 교황님 - 청년대회
- 41 호야 신부님의 희년 상식
- 42 우리 성지 프사
- 44 성지 부루마블
- 46 보아라 찾아라 환호하라
- 48 우리들 이야기
- 50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순례



말씀 읽기

3월 2일 연중 제8주일 루카 6, 39-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8주일 (루카 6, 39-45)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 ②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티를 빼내어라.
- ③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 ④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2 복음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3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나는 내 마음을 어떤 곳간으로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기

3월 9일 사순 제1주일 루카 4, 1-13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3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6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7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9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11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12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3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1주일 (루카 4, 1-13)

- 1 오늘은 전례력으로 ○○ 제1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이 기간은 어떤 시기일까요?
- ① 부활시기 ② 성탄시기 ③ 사순시기 ④ 연중시기

-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유혹을 찾아 적어보세요.

- 3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 또한 삶 안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어떤 유혹을 잘 받는지 생각해보고, 그 유혹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봐요.



말씀 읽기

3월 16일 사순 제2주일 루카 9, 28-36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2주일 (루카 9, 28ㄴ-36)

1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예수님 ② 엘리사 ③ 모세 ④ 엘리야

2 네모로직을 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들어 드린다고 이야기한 것을 적어 보세요.

	3	5	7	8	7	7	8	7	5	3
2										
2										
4										
6										
6										
8										
8										
4 4										
4 4										
4 4										

3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눈부시게 빛나셨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란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들은 복음의 이런 빛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기

3월 23일 사순 제3주일 루카 13,1-9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





말씀 다지기

사순 제3주일 (루카 13, 1-9)

1 오늘은 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 ① 포도나무 비유
- ②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교훈
- ③ 겨자씨의 비유
- ④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2 ‘너의 죄를 씻으니’ 를 들으며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껴보세요.



출처: 작사·곡 윤혜숙 안젤라/Cover by 노래해주리

3 오늘 복음의 주제는 ‘회개’ 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순시기는 회개와 자유의 때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바꾸기 위해 ‘잠시 멈춰’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3월 30일 사순 제4주일 루카 15, 1-3, 11-32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말씀 다지기

사순 제4주일 (루카 15, 1-3.11-32)

- 1 복음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림 설명 YouTube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것을 나눠봅시다.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 2 복음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가엾은 마음으로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과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큰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을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 3 오늘의 복음 “되찾은 아들의 비유” 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랑과 용서를 떠올려보세요.



말씀 읽기

4월 6일 사순 제5주일 요한 8, 1-11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4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6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7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9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11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말씀 다지기

사순 제 5주일 (요한 8, 1-11)

- 1 우리 천주교회가 받아들이는 죄란 무엇입니까?
 - ① 법을 어기는 것
 - ②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 ③ 상처를 주는 것
 - ④ 미사시간에 장난치는 것

- 2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단죄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여자를 끌고 와서
 - ② 돌을 던져 죽이라고
 - ③ 가운데 세워 놓고
 - ④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 3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어떤 것을 쓰셨을지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루카 23, 1-49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1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3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4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5 ○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6 ○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7 예수님께서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11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2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13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15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17)·18 ○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19 ○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20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21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 ○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 그러자 23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26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27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28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29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할’ 것이다. 31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32 ○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33 ‘해골’ 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36 ○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40 ○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4 ○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4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47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48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말씀 다지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루카 23, 1-49)

- 1 오늘은 주님 성지 수난 주일입니다. 오늘 ㉠ 신부님의 제의색과 전례 초색은 어떤 색인지,
㉡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① 자주색(보라색),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② 자주색(보라색),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
 ③ 홍색(빨간색),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
 ④ 홍색(빨간색),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죄명 때에는 무엇이라고 적혀있었나요?
 ① 도둑
 ② 내란죄
 ③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④ 반란과 살인
- 3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4, 1-12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씀 다지기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 1-9)

- 1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며, 파스카 성야입니다. ㉠ 파스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날을 기리는 것이며, ㉡ “파스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① ㉠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 ㉡ 흘러가다.
 ② ㉠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 ㉡ 건너가다.
 ③ ㉠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 ㉡ 흘러가다.
 ④ ㉠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 ㉡ 건너가다.

- 2 오늘 복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열 한 제자
 ② 베드로
 ③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④ 사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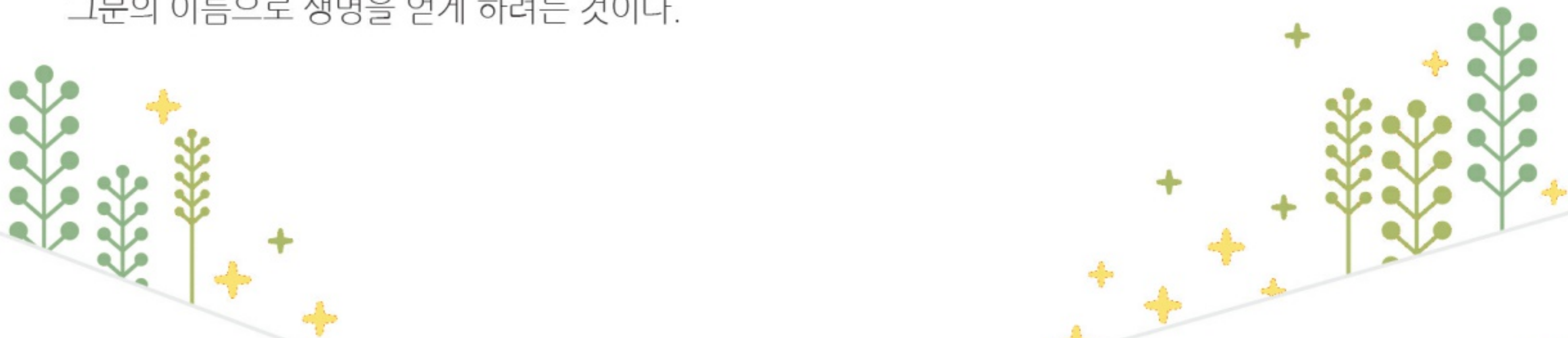
- 3 부활한 예수님을 친구들이 직접 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27일 부활 제2주일 요한 15, 1-8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2주일 (요한 20, 19-31)

1 오늘 복음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이 ㉠ 몇 번 나왔는지, 토마스가 예수님의 몸에 ㉡ 몇 군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알아보고, 그 수(㉠+㉡)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① 3

② 4

③ 5

④ 6

2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 ‘구원자’ 의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① 메시아

② 아멘

③ 그리스도

④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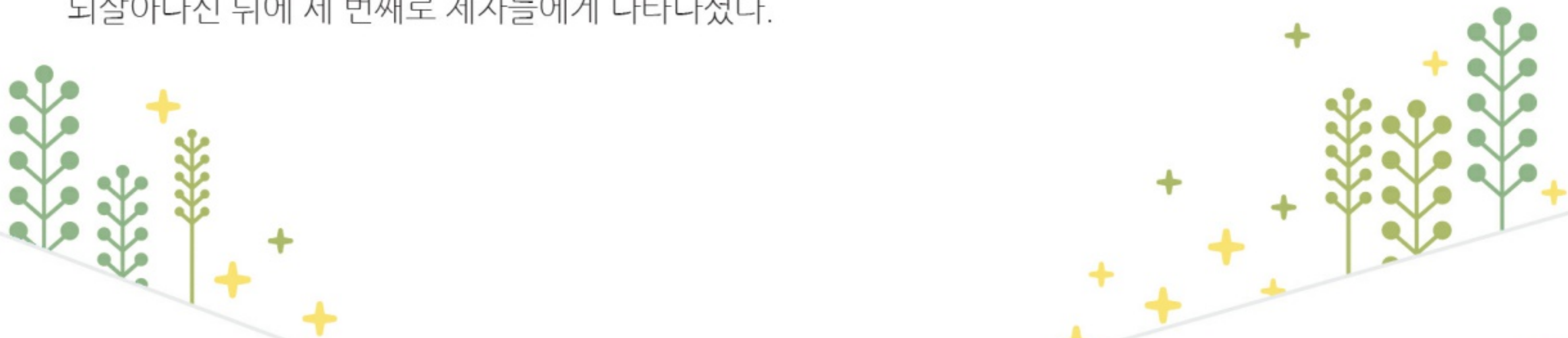
3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토마스라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5월 4일 부활 제3주일 요한 21, 1-14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8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9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11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4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3주일 (요한 21, 1-19)

-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② 물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③ 물 위를 걷고 있었다. ④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 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나요?
 ① 백 마리 ② 백쉰세 마리 ③ 아홉 마리 ④ 잡지 못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직접 아침을 차려 주셨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과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5월 11일 부활 제4주일 요한 10, 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4주일 (요한 10, 27-30)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동물이 무엇인가요?

- ① 닭 ② 개 ③ 돼지 ④ 양

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을 준다. 아버지와 나는 ()다.

3 오늘은 성소 주일이에요.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의미해요. 특별히 사제, 수도자들을 가리키지만, 하느님께서 모두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성소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5월 18일 부활 제5주일 요한 21, 1-5나

나 요한은 1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2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5주일 (요한 13, 31-33 ~ 34-35)

- 1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어요.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 ① 서로 미워하여라.
 - ② 서로 슬퍼하여라.
 - ③ 서로 사랑하여라.
 - ④ 서로 기뻐하여라.

- 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셨나요?
 - ① 서로 사랑할 때
 - ② 기적을 일으킬 때
 - ③ 싸움을 잘할 때
 - ④ 미사에 빠지지 않을 때

- 3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5월 25일 부활 제6주일 요한 14, 23ㄴ-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6주일 (요한 14, 23-29)

- 1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① 금전 ② 성경 ③ 성령 ④ 평화

- 2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성령에 관한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아요.
 ① 지도자 ② 배신자 ③ 보호자 ④ 인도자

- 3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성령께서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 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앙큼한(*^_^*) TINO 생각

사람이
큰 산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



가끔 상처가 생기고 흥터가 남겠지만,
벌떡 일어나 다시 걸어가 보자.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해보는 거다

[앙큼] 티노



①



②



③



④



⑤



⑥



태희와 아치

글/그림_이윤식 마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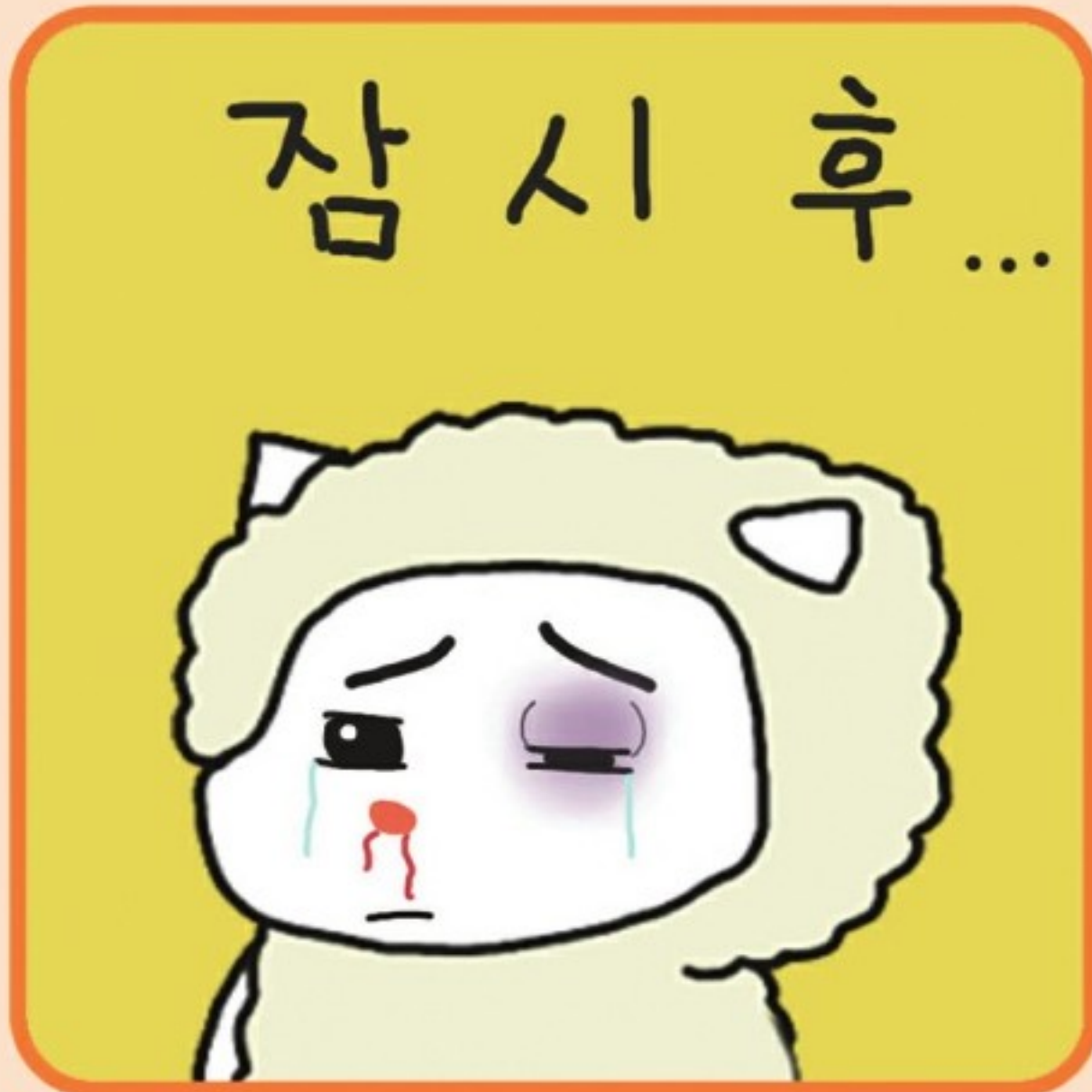
⑦



⑧



⑨



⑩



옳은 일이든 옳지 못한 일이든
착하다는 말은 말을 잘 들으면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착한 사람도 좋지만 한 번 더 나아가서
올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yrie **자비송** eleison

글 : 감사랑

우리는 미사 시작 부분에 참회 예절을 거행해요,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 먼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예요.
이때, 고백 기도와 함께 바치는 기도가 바로 '자비송'이에요.
자비송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하는 청원 기도예요.

✦ Load, have mercy.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Load, have mercy.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Christ, have mercy.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Christ, have mercy.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Load, have mercy.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Load, have mercy.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ANDONG_DUREPAN



있어보이는



글 : 어흥

두레판 친구들 안녕?

작년 한 해 동안 미사에 사용되는 표현을 영어로 알아보았어요.
올해는 성경의 한 구절을 라틴어로 알아보려고 해요.

라틴어는 흔히 '사어'(死語)라고 해서 '죽은 언어',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문이나, 교회의 용어들, 학문적인 용어들은 모두 라틴어로 표기하고 있죠.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예요.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은 따라 써보면서 성모님의 순종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Ecce ancilla Domini"

에체 안칠라 도미니

"Ecce ancilla Domini"

(_____)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

가_{톨릭}작_은

전 통

글 : 김진심

두레판 친구들 안녕?

봄이에요. 지난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한파도 잦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의 겨울과 비교하면, 지난 겨울은 유독 매운 맛이었는데, 그 덕에 이번 봄이 너무 반갑게 느껴지네요. 봄은 움츠러들었던 생명이 싹을 틔우고 활동을 재개하죠? 우리 친구들도 추운 겨울 동안 모아 두었던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해서 활발하게 생명력을 드러내는 시간이면 좋겠네요.

가족이 성당을 다니고 있다면, 성당에서 선물로 받았거나 구입한 물품이 그 집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천주교 교우의 집'이라 적혀 있는 촌스러운(?) 십자가 스티커(강력 접착)가 붙어있고요. 안방 기도 상에는 성모상과 반쯤 타들어 간 초, 개수를 파악할 수 없이 엉켜있는 5단 혹은 팔찌 형태의 묵주 더미들이 예쁜 동전 지갑에 담겨있습니다. 이방 저방에 시들어버린 편백나무 가지와 함께 십자가상이, 거실에는 예수님이나 성인의 그림, 성경 말씀이 쓰인 액자가 있어요. 책장에는 성경책과 평생 안 읽을 법한 신앙 서적들이 꽂혀있고, '평화방송'(가톨릭 방송)이 틀어져 있는 TV도 인테리어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OO성당 달력'이 벽이나 탁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갖춘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천주교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축하해요.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성당에서 달력을 제작해 성당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어른들은 교구에서 제작한 다이어리도 받아요. 달력에는, 국가 공휴일과 가톨릭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 일정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미사 성경 말씀의 장, 절, 대축일과 주요 전례일, 성월이 꼼꼼히 기록돼 있고, 주제에 맞게 성화 혹은 순례지 사진이나 그림이 삽입되어 있지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 보낼 일정까지 기록한다면, 완벽한 우리 성당 주일학교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성당 달력에 기록된 모든 건,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 그리고 신나게 사랑하기 위한 계획, 내 마음속에 간직될 좋은 추억에 대한 예고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력은 하느님, 신부님과 수녀님, 어른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서 보낼 좋은 나날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보낼 좋은 나날을 기록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건 좋은 전통인 거 같아요. 3월이면 주일 학교도 새 학기를 시작하지요? 또 이번 한 해는 어떤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지 기대하며, 기록하고,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모임하러

두레판 친구들 안녕!!
티노샘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WYD(World Youth Day)라고 들어봤나요?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젊은이의 날이라고 하며,
국가와 인종, 언어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교황님이 주관하는 영성과 문화의 국제 모임이라 할 수 있어요.

교황 행사와 젊은이들의 축제로 구성되어요.

세계 청년대회 상징 순례
Pilgrim of Symbol
십자가, 성모 성화

교구대회
(Days in Diocese)

본대회
(World Youth Day)

후속 모임

지금은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이며,
지난 대회는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어요.
그곳에서 다음 개최지가 발표되었는데..
우와!! :D
"대한민국!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두레판 친구들
점점 기대가 되지 않나요?
다음 호에는
2027년 대한민국 서울 대회
준비 여정들을 알려줄게요.

다음에 만나요~





Q1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한 해예요. 이 시기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 마음속에 묵혀둔 잘못들을 고백하고, 하느님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를 주는 해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때는 빚도 없애주고, 노예도 자유롭게 해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모두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다시 세우는 거죠. 가톨릭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희년을 지켜오고 있어요. 요즘은 25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에 "특별 희년"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예수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대희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2025년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희년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Q2 희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나요?

희년에는 "대사"라는 특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걸 의미해요. 즉 죄의 결과인 벌의 흔적까지도 없애주는 하느님의 큰 선물입니다. 특별히 대사는 나를 위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Q3 희년 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고해성사를 봐야 해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잘못을 용서받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두 번째, 미사에 참여해요. 대사를 받으려면 미사에 꼭 참여하고 성체를 모셔야 해요. 세 번째, 성지 순례를 해요. 희년 동안 성지로 지정된 곳에 방문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안동교구는 안동 주교좌 목성동 성당, 우곡 성지, 마원 성지, 진안리 성지를 방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해요. 대사를 받으려면 교황님이 제시한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황님의 지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사랑과 자선을 실천해요. 대사를 받으려면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해요. 대사를 받는 건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느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희년, 어렵지 않죠?

호야 신부님's
질문 하나!

희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셋 버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나요?

우

성

프

리

지

사



#우리성지 프로필
#첫번째 이야기
#안동 교구
#봉화우곡성지
#대신 가드림
#팔로우, 좋아요, 알림설정
#사진,글 : 양말아리

PROFILE



#성전
#성지 표지석
#농은 홍유한 선생이 관심가진
<칠곡>의 천주학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팔로우
#다음은 어디?





글 : 안실장

부루마불

성지

1 다마스쿠스 문



첫 번째 장소인 다마스쿠스 문은 예루살렘의 구 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성벽의 8개 성문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마스쿠스란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수도(다메섹)를 향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로마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중심 성문이었고, 원래 삼중 문이었으나 지금은 한 쌍의 문만 남아 있어요. 문안으로 들어서면 아랍 바자르가 시작 되고, 왼쪽은 이슬람교 지구, 오른쪽은 그리스도교 지구가 있습니다.

 5분

2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장소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는 라틴어로 고통의 길,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주님 무덤 성당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600미터의 거리로, 십자가의 길 14처 중 9개의 장소로 표시되고 있어요. 나머지 5개는 주님 무덤 성당 내에 있어요.

지금의 십자가의 길은 상인들과 행인들이 가득한 시장이 되었다고 해요. 북적거리는 건다 보면 2000년 전 파스카 축제를 위해 몰린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때의 나라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도망을 갔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와 신앙을 간직한 도시

: 예루살렘



이스라엘 Israel



22,070km²



910만 3,151명

3 주님 무덤 성당



출처: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

드디어 주님 무덤 성당에 도착했어요!
주님 무덤 성당의 터는 1세기 초 예루살렘 성벽 바깥
쓰지 않는 채석장의 바위를 깎은 유대인 무덤이
있던 곳이었으며, 이후 예루살렘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교도의 신도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황제의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는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다가 골고타와 무덤이 있었던
위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성녀는 325년 골고타
부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굴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전체 길이 150m,
폭 75m의 대성당을 335년에 봉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님 무덤 성당은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모두 파괴 되었고 이후 십자군에 의해 보수되어
오늘날 우리가 찾는 주님 무덤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무덤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구시가지



다함께 1분 순례

GO!



1분 순례

출처: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_성지순례의 모든 것



7분

1월 17일~19일까지 청소년 견진캠프가 농은수련원에 있었습니다. 50명의 친구들이 견진성사를 받았어요. 2박3일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교리 듣고, 기도하느라 몸이 좀 힘들었지만 견진 성사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견진 성사의 은총을 내 삶에 잘 담아 두고 기쁘고 떳떳하게 지내길 바라요.

해리 / 뱀 / 연필 / 리모컨 / 기억

숨은 그림 찾기

정답을 찾아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응모해주세요~!



다른 그림 찾기

12/15일에 예비신학생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2024년을 마무리하며 교구청에서 종강미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비신학생 모임에서 또 만나요^^

다른 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희망의 순례자들



모전동 성당



서울 순례길로 떠나는 중고등부의 하루

모전동 친구들이 서울의 성지를 순례하였군요.

조별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약현동 성당을 순례하며 기도도 하고, 미션 사진도 찍었네요.

왠지 순례시기동안 희망의 증거자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은데요?



영양성당



김수환추기경 기념관 및 생가

김수환추기경 기념관 및 생가, 봉안경당, 갈전마리아성당을 다녀왔어요.

미사 봉헌과, 성직자 묘소 참배,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갈전 마리아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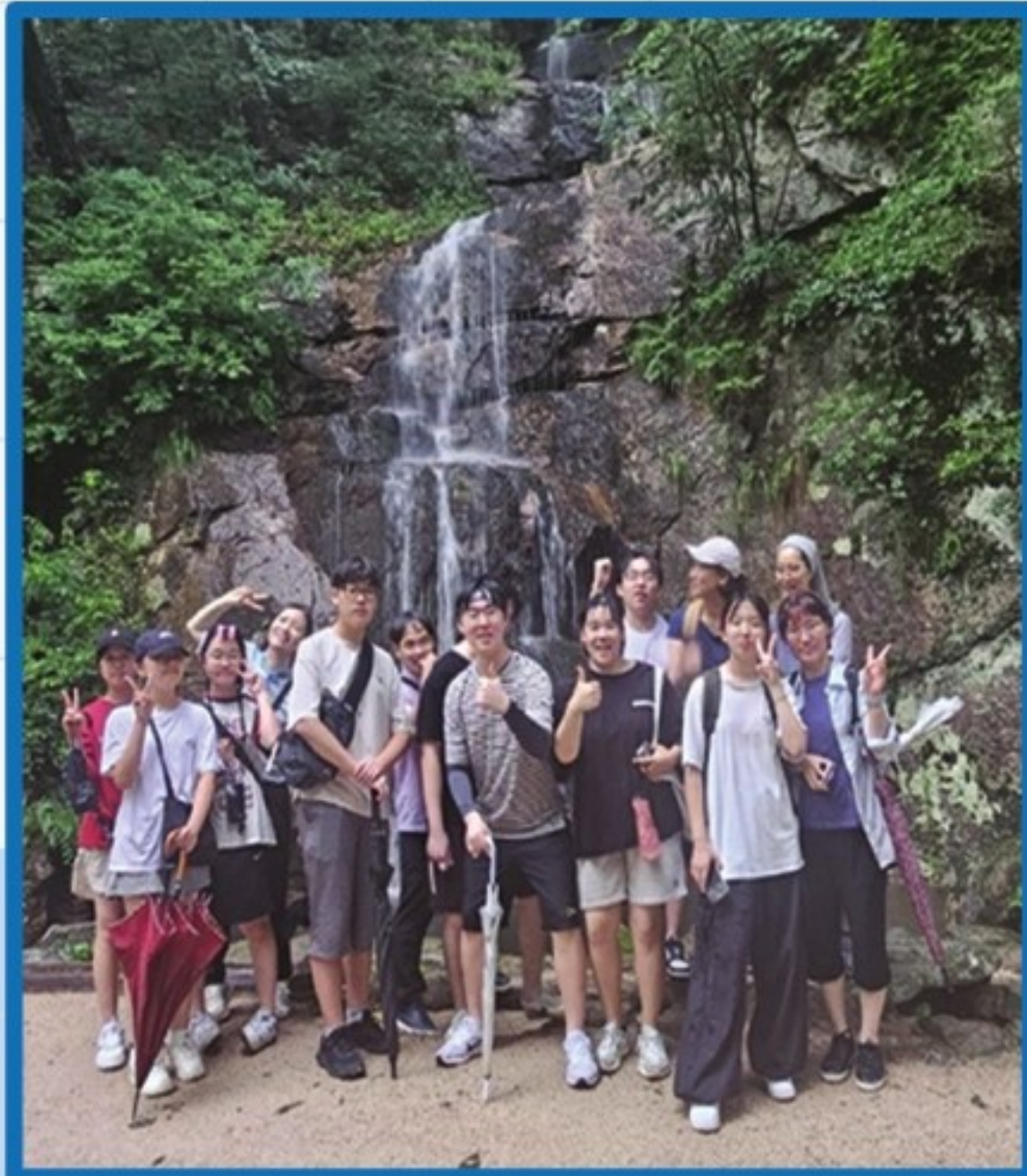


문경 마원성지, 문경새재

갈전
마티아
성당



갈전 마티아 성당 친구들은 문경 마원성지, 문경새재를 순례.
최양업 신부님에 관해 설명도 듣고, 미사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순교자 기념성당, 순교자 묘소, 캄보디아 교회

신학생



안동교구 학사님들은 대구대교구의 학사님들과 함께
천주교 대구대교구 순교자 기념성당과 순교자 묘소
(허인백 야고보, 김종륜 루카, 이양등 베드로),
캄보디아 교회를 순례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전에서 봉헌된) 아기 예수님은 악과 고통,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루카 2, 22-40)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인생의 어떤 상황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느님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태 19, 26)

말씀 순례



Republic of Korea



Jerusalem



공지사항

찬미 예수님! 두레판 친구들~

2025년 올해는 주일학교에서 희망의 순례길을 걷어가는 <희망의 순례자들 - 성지순례> 넣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각자의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걷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첫 번째,

두레판에 소개된 있어보이는 우리말 교본 필사, 복음 퀴즈/ 숨은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등 두레판 활동을 4월 14일까지 인증해주세요.
인증된 친구들 중 10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합니다

두 번째,

3월 22일~23일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이 있어요.
본당의 회장단 친구들은 얼른 신청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안동교구 두레판"

http://www.instagram.com/andong_durepan

#사목국 메일 - sa3119@nate.com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36678 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길 77)

